

HOLY CLUB 창립 5주년 기념 행사 성황

- 전국 클럽 대표단 동참 춘천회원 재할 도전 -

춘천 홀리클럽(회장 허천 장로)은 6월 16일 오후 6시 춘천중앙감리교회 대강당에서 전국홀리클럽에서 참가한 대표단들과 춘천회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재할의 상지를 받고 역사적인 창립 기념 행사를 거행했다. 이날 행사는 6시~7시 까지 예찬을 나누고 20분간 Opening찬양, 7시 20분부터 8시 까지 감사예배, 8시 부터 30분간 축하행사를 가졌다. 신종철 안수집사(춘천홀리클럽

총무)의 사회로 시작된 감사예배에서 권오서 목사(강원도기독교연합회장)는 거룩한 사역을 위해 봉헌 모든 회원들이 춘천과 각 도구를 복음으로 거룩하게 하는 일에 최선을 경주해 줄 것을 당부했으며 대표기도 김창수 목사(신성감리교회), 성경봉독 장상교 목사(삼밭길교회), 특별기도 지용환 목사(은혜장로교회), 박상철 목사(제일성결교회), 봉헌 기도 김재명 목사(석사순복음교회), 오

성훈 테너가수의 찬양과 이태라 국제한양음대합창단의 찬양이 있었으며 임택창 목사(춘천성시본부장)의 축사로 예배를 드렸다. 또 축하행사 시에 조남진 전회장에게 감사패 전달이 있었고 김주환 목사(춘천기독교연합회장) 배계집 장로(춘천성경) 이원호 목사(소양성결교회)의 축사와 신종철 장로(한남대 총장, 홀리클럽 전국연합회장)의 격려사, 춘천홀리클럽

창립에 기여한 양원형, 진용대 장로(서울로고스법무법인대표) 인사말씀이 있었고 조충환 목사(성시본부 사무총장) 폐회기도로 행사를 마쳤다. 모든 회원들은 많은 교제 지도자들의 격려와 전국 대표단의 참여 열기에 새로운 도전을 받고 형님 클럽다운 모습으로 성장 발전할 것을 다짐했다.

춘천직장선교연합회 임원 및 위원장

민병업 연합회장(춘천시청 남춘천감리교회)은 지난 5월 24일 효자동 신한국관에서 중경회장단과 임원 및 위원장 회의를 갖고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총무와 각 위원장 임명 사항을 발표했다.

(제12차기 신임 임원)

*연합회장: 민병업 장로 (춘천시청)	*신교개혁위원장: 양승일 집사 (강원도청)
*수석부회장: 박상진 장로 (춘천우배곡)	*장도예배위원장: 진상용 권사 (강원대학교)
*부회장: 민경옥 장로 (강원농협지역본부)	*교육(홍보)위원장: 정동준 안수집사 (강원교육청)
*사무일 장로 (강원농협교육원)	*찬양체육위원장: 이종현 집사 (춘천경찰서)
김철수 장로 (춘천교도소)	*통일대책위원장: 김중현 장로 (강원지방경찰청)
*총무: 정철교 집사 (조흥은행 강원지역본부)	*생활실시위원장: 조대일 집사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협동총무: 박복신 집사 (한국은행 춘천지점)	*사회사업위원장: 정성호 집사 (강원도산림개발연구원)
*회계: 안영자 집사 (동대동교회)	
*감사: 한성욱 안수집사 (강원지방경찰청)	
김용일 안수집사 (한림대학교)	
*성서화주최위원장: 김병선 장로 (한국전력강원지사)	

춘천장로연합회 제15차 총회 개최

춘천지역 기독교장로연합회(허종구 회장)는 6월 27일(수) 오후 5시 서부감리교회에서 제15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정경 및 사업보고와 임원을 개설했다. 이날 총회에 이어 예배를 드리고 오후 7시부터 회원들과 성도들이 함께 헌신예배를 드린다. 동 연합회는 현 회장 임기동안 인교회교회 헌신예배, 교역자 장로연합회

한 교회 한 성도 성시화기도모임 동참운동 전개

성시화기도모임(대표 허종구장로)에서는 우리의 현실문제 해결책은 진실된 기도에 있다는 믿음으로 모든 교회의 대표들이 한 자리에 모여 하나로 연합해 나라와 사회, 교회, 성시화, 세계선교, 남북평화통일을 위하여 주기를 각오한 중보기도 사역을 벌이기로 결정하고 출석하는 교회를 대표하여 함께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교회의 남녀신도, 청년회, 성가대 등 모든 부서에서 매주 1명 이상 기도자를 파송하여 함께 기도드리라는 일이다. 내 교회에서 기도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매주 목요일 밤 8 교회 대표자들이 순차적으로 참가한다면 개인별로는 1년에 한 두차례 참가하는 것으로 연합기도모임은 매주 뜨겁게 이루어질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 될 것이다. 문의처: 256-1260~1 팩스: 257-1260 이메일: holycy@holycy.org 담당위원: 강종배, 김영명, 김부희, 조은재, 유근장, 신종철

기독교 지도자 한해 대책 특별기도

춘천성시화운동본부(본부장 임택창목사)는 극심한 한파로 인해 생명을 위협받고 있는 겨울철을 맞아 지역방송을 구출을 위해 5월 18일 전무이사 송영우 장로 일행이 춘천을 방문, 세종호텔에서 춘천지역 교회를 대표하는 목사, 장로들과 간담회를 갖고 KCTS방송 프로그램 등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소개하였으며 지역방송구출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기독교TV방송에서는 교제 연합운동에서 운영해야 할 것을 제안했고 지도자들의 후원으로 춘천성시화운동본부가 춘천지역 방송 운영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에 성시화운동본부는 기독교TV 지역방송 운영에 관심을 가진 분들을 모집합니다.

▷모집대상: VJ(나레이터) / 비디오촬영기사 0명

▷모집기간: 2001년 6월 20일~8월 20일 까지

▷응모자격: 전종교,유형교회,취미자,희망자 모두 가능.

단, 비디오 촬영기사는 6mm 이상 카메라 소지자.

※ 순수하게 봉사하는 분을 환영하며 광고 등 수입에 따라 소정의 봉사료 지급도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인력사항 / 이력 / 연락처 / 특별사항 등

팩스 257-1260 이메일 holycy@holycy.org 전화 256-1260

춘천성시화운동본부



6.25 상기 국가안보와 평화통일을 위한 연합기도

- 민·관·군 합동으로 순복음만민성전에서 교파초월 -

춘천기독교연합회(회장 김주환목사)는 오는 6월 24일 오후 3시 순복음춘천교회 만민성전에서 민관군 합동으로 연합예배를 드린다. 춘천지역의 모든 교회는 6.25 전쟁을 멈추게 하고 오늘과 같이 많은 교회와 성도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한자리에 모여 우리 사회의 건강한 회복, 힘있는 국방, 그리고 극심한 한파로 폐농위기에 있는 농사를 위해 단비를 부어주시기를 기도드린다. 이번 행사는 춘천대청 행사기간 중 하루를 기독교연합회가 주관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된 것이다.

제2회 초교과 교회 목사, 장로 연합 세미나 개최

- 하나의 교회로 접근 모색, 7월 2일 동부장로교회 -

춘천기독교연합회(회장 김주환목사)는 오는 7월 2일 오전 10시 춘천시 명동에 위치한 동부장로교회에서 제2회 목사, 장로 연합 세미나를 갖는다. 이 운동은 교회의 진전성 연합, 건전육성과 일치와 화해, 가치관이 무너지고 있는 우리 사회의 회복을 위해 연합된 힘으로 성시화의 꿈을 한발 앞당기려는 시도라고 한다. 동 세미나 모임을 통해 목사 상호간, 목회자와 평신도, 일반신도 상호간에 겸손하고 낮아지며 애타적인 모습이 나타나기

를 바라며 누구보다 싫어서 라는 세속적인 모습이 발견되지 않기를 성도들은 기대한다. 이날 특별강사는 이윤환 목사(서울 장석장로교회)이며 오전 강의를 마친 다음 동부교회에서 정성적 마련한 성찬을 나누고 오후 강의 세미나를 갖는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 4월 23일 중앙감리교회에 이어 두번째 기회로서 보다 많은 목회자, 장로, 일반 성도들의 동참을 바라고 있다.

심야연합 기도로 교회 변화 바람 일으켜

- 초교과 연합기도 통해, 7월 13일 중앙성결교회에서 -

춘천성시화기도모임(대표 허종구장로)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의 연합된 합심기도를 통해 교회와 사회를 변화시켜 우리가 사는 도시를 하나님의 도성으로 만들고 남북의 평화통일과 세계 복음 선교를 위해 오는 7월 13일 오후 9시 30분부터 자정까지 춘천시 죽림동에 위치한 중앙성결교회에서 모든 교회 목회자와 성도들이 함께 모여 우리 앞에 놓인 당면 과제를 위

해 합심으로 기도드린다. 성도들이 한 자리에 모여 한마음, 한목소리로 중보기도 하네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뻐하실 것이다. 성시화기도모임 본과위원회(위원장 유근장장로)는 2개월 마다 열리는 연합심야기도모임 준비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HOLY CLUB 새회장 허천 장로 선출



장) 부회장 최상규(유일) 임의방(신임) 총무 신종철(유일)을 선출하고 여타 임의

원은 임원회에 위임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재정조달 방안과 창립 5주년 기념 행사 등을 협의했다. 허천 회장은 취임과 함께 당면사안 추진 및 클립 발전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춘천교제 지도자들은 동 클럽이 지난날의 산교훈을 잊지 말 것을 충고하고 있다.

춘천기독교 직장인 정오예배 안내

장소: 춘천동부장로교회

일시: 6월 26일 화요일 12:00(예배)~12:35(식사)
설교: 최상도목사(사단중앙성결교회) 사회&안내: 춘천교도소직장선교회
기도소독: 춘천경찰서직장선교회

춘천기독교직장선교회 주최 정오예배위원장 진상용 033)250-7110

김춘배화실

취미/생/전/문/미/술/학/학
(사양화·취미생 전문. 기초지도)

TEL 033)261-6573 (4선) 253-1277(4선) H/P 019-336-6573 / E-mail: bellier@hanmail.net 김춘배화실

춘천 교경협의의 연합 부흥성회

* 일시: 6월 17일(주일) 오후7시 ~ 6월 20일(수) 오후7시
* 장소: 평화감리교회 *강사: 서달수 목사(서울진중교회)
* 문의: 254-5674 최태수 목사 / 251-2929 김유식 목사

저소득 가정 생계비 지원을 위한 제8회 춘천지역 어린이연합성가제

복지관에 결연되어 있는 저소득 가정에 생계비를 지원하고 춘천지역 각 교회의 어린이 성가대가 초교과적으로 연합하여 한자리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성령을 드높이고 지역사회에 복음을 전하는 기회와 어린이 성가대의 질적 향상을 가져오는 계기를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일시: 2001년 6월 23일(토) 오후 6시 30분
★장소: 남춘천감리교회 본당
★참가교회: ① 남춘천감리교회 ② 춘천동부장로교회 ③ 순복음춘천교회 ④ 춘천성광교회 ⑤ 춘천석사감리교회 ⑥ 춘천중앙감리교회 ⑦ 춘천제일교회 ⑧ 춘천소양성결교회 (8개교회)
★특별출연: 월드비전춘천 어린이합창단
★주최: 월드비전 춘천지부
★주관: 월드비전 강원지부 춘천종합사회복지관
★문의: 033)254-7244 사회복지법인 월드비전 춘천종합사회복지관



사설

직장 기독교인 선교대회 이대로 좋은가

중국의 수많은 직장 내에 선교회를 조직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것은 직장 기독교인들이 부러워 시샘을 갈 것 같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아직도 복음의 불모지로 남아있는 직장이 많을 뿐 아니라, 기존 선교회를 유지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 기독교인의 존재가치는 복음으로 살고 또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전할 때 인정된다. 오늘날 직장인의 선교지역에는 새로운 선교전선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매주 모는 매월 모여 예배하고 기도드리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순천직장선교연합회는 11년 전부터 매년 선교대회를 열고 있다. 그간 수많은 선교대회를 보면서 주권자들을 위한 연

례행사라는 인상을 밀쳐버릴 수가 없었다. 선교대회를 여는 것은 직장복음화를 위한 전략 모색과 열기 확산에 그 목적이 있을 것이다. 다양한 프로그램도 필요하지만 새롭게 보완된 선교 전략 마련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실질적인 선교대회를 마련해야 한다. 우리 지역의 직장 복음화 사업은 지역교회가 역점을 두고 직접 참여해야 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든다. 순천시청에 타고교신도회가 창립되었고 종단의 대표가 참석하여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는 소식이 있다. 교회들이, 직장선교를 위해 배어 기도하고 선교전선을 마련하라. 직장선교연합회는 연례적인 행사가 되지 않도록 중점을 모아 효과적인 선교대회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교회음악 문화 보전에 함께 하자

한국 교회음악은 우리나라 초기음악의 기반이 되었을 뿐 만 아니라 그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1980년대 이전만 해도 음악인은 기독교인이 대부분이었고 특히 합창 분야는 교회성가대 대표였다. 일반 사회음악은 1970년경부터 급부상 주도하는 새마을 노래, 건전가요 운동의 불을 타고 일어나기 시작했다. 이때부터 시군지역 합창경연대회 연주회가 매년 지속되었으나 합창단의 구성원은 거의가 교회성가대 멤버였다. 당시 교회음악의 종교라는 말에 반색이 없었다.

경제부흥에 따라 메디치어 산업의 발달로 교회음악은 대중음악에 그 자리를 빼앗겼고 오늘날은 그것을 닮아

가는데 열을 올리고 있으며 특히 예배음악, 합창음악은 사라질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우리의 현실은 대중가요를 가르치는 곳이 성립 중이다. 우리 지역에는 여러 가지 기독교연합 기관이 있으나 교회음악 보전에는 별관심이 없고 집단 이기주의적인 곳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 같다. 미흡하나 교회음악이 보전되고 있는 것은 월드비전 강연지부가 매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정장년 연합성가대 전수일 것이다. 이제 교회들은 연합하여 음악의 종교라는 명성과 자존심이 더 이상 실추되지 않도록 연구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협력을 이끄러져야 할 것이다.

유비무환 정신으로 평화통일을 준비

우리 국민들은 평화적인 남북통일을 갈망하고 있으며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 이 땅에 건국이 된다고 평화통일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있다. 지난해 남, 북의 정상들이 만나고 이산가족 상봉과 금강산 관광 여러 분야 대표들의 대화로 화해무드가 조성되고 있다 할 것이다. 일부 국민들은 마치 전쟁이 종식된 양, 통일에 있어 심각한 생각으로 전쟁 불감증에 젖어 있는 것 같아 염려스럽기도 하다. 통일은 우리의 목표이지만 성급하게 서둘러야 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 유비무환(有備無患)의 정신을 가지고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 통일

에 앞서 해결해야 할 근본적인 문제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이 한반도의 현주소이다. 우리는 6.25를 맞아 동족상잔의 쓰라린 역사를 상기하면서 이 땅에는 휴전이 있을 뿐 전쟁이 종식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성서에 기록된 회한 50년이 지나갔다. 이산가족 만남의 자유, 강제수용한 재산과 농지권, 교회, 신앙의 자유 등 빼앗은 모든 권리를 원 주인에게 되돌려 주는 아름다운 일이 실현되기까지 갈 길이 멀다. 이제 우리들은 전쟁의 불씨가 계속 타오르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통일을 준비하는 지혜있는 국민의 위치를 지켜야 할 것이다.

MANNA

은사중심적 vs 봉사중심적

모든 영적 은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효과적으로 섬기도록 우리를 준비시키고 무장시키기 위해 주어진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징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고 부요케 하시기를 열망하는 마음입니다.

자기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과는 무관하며, 성령의 역사와도 무관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비추어볼 때 나는 "은사 중심적"이 되는 것은 잘못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봉사 중심적"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당신의 영적 은사는 무엇입니까?"라고 묻기보다 "당신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라고 묻어야 합니다.

나는 나의 은사가 무엇인지 따져보려 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단지 내가 섬길 수 있는 것은 어디서든 섬기기, 하나님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것을 하기 위해 애를 씁니다. 이렇게 하는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자신이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으며, 자신의 은사가 능력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다고 믿습니다. 가령 대청소를 할 때 진공 청소기를 잡은 사람이 걸레를 쥐는 사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모두 한 가지 일을 성취하기 위해 서로 다른 기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해야 할 일을 마련해 두셨으며, 당신이 그 분을 섬기는 것은 큰 특권입니다.

(진정된 그리스도인, 찰스 프리리스)

교계단신

- ◆ 순천소양성경교회 이원호 담임목사는 6월 18일부터 20일까지 제일교회에서 부흥회를 인도하고 28일 저녁 7시 강남금빛기도원에서 열리는 집회에 참석, 인도할 예정이다.
- ◆ 순천중앙성경교회 사공정 담임목사는 5월 12~15일까지 유전배,김종호 장로와 함께 황제교회인 일본 동경 요쓰이신교회에서 방한하여 교회절기 50주년 기념예배에 참석하여 축하사절로 일본과 한국간 기도제목을 나누어 기도하기로 하고 역사적인 대륙사단 해결을 위해 함께 성의하고 협력키로 했다. 배물남선교회 주최로 6월 17일(주일) 저녁에 시 전도원 인강자관사를 초청해 전도집회를 가졌다.
- ◆ 순천제일성경교회(박성호 담임목사)는 7월 23(월)~25(수)까지 기화유스호스텔에서 '나누는 삶 섬기는 삶'이란 주제 아래, 전교인 여름수련회를 개최한다.
- ◆ 순천중앙성경교회(유철중 담임목사)는 6월 25~7월 14일까지 본 교회에서 '꿈 있는 교회, 꿈꾸는 교사'를 주제로 제2차 특별대별기도회를 실시한다.
- ◆ 순천광명성경교회(김종희 담임목사)는 오는 6월 24일(주일) 저녁예배에서 소파로,홀로,한성 찬양단 발표로 찬양의 밤 시간을 가진다.

일본현 연합기도회를 이끈 김춘희 목사

일본현 기도의 연합회는 지난 5월 24일부터 6월 1일까지 나가미기 강화고등학교 대강당에서 제4회 나가미기기도회 전국대회를 개최했다.



일본현 기도의 연합회 임원과 김춘희 목사의 모습(왼쪽)

동 기도회에 강사로 초청된 일본선교소속 김춘희 목사(왼쪽)는 대만, 홍콩, 아시아권 및 일본 전국현에서 참가한 3백여명의 일본인 크리스찬들에게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오라(약4:6-7)"는 주제로 일본인들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지 못한 것은 우상숭배로 심해져 제1계명을 범한 죄 때문이라고 먼저 회개해야 한다고 격려하여 회개운동을 불러 일으켰다.



일본현 기도의 연합회 임원과 김춘희 목사의 모습(오른쪽)

화천기독교연합회 통일염원 기도

지난 6월 4일 정오 화천군 "비목문화" 행사에 앞서 화천군 기독교연합회 주관으로 화천 봉선사에서 1천5백여명이 모여 통일염원기도회를 열었다.

화천군기독교연합회장 최원영 목사(화천제일교회)의 진행으로 권오서 목사(순천중앙교회)가 설교하였고 통일을 기원하는 간절한 기도 소리가 후천선 이복까지 들리는 듯 하였으며 영적지경을 넓히는 계기와 기독교가 하나되는 미사비의 기도회가 되었다.

순천중앙교회(김주환 목사)는 순천소양성경교회(이원호 목사) 순천제일성경교회(박성호 목사) 순천시암중앙성경교회(최상도 목사) 순천신사성경교회(장재호 목사) 순천일신장교회(이은주 목사)

원주 태장감리교회 새성전 기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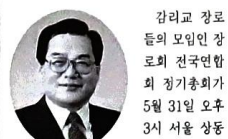
동부교회 박상혁 감독이 시무하는 원주 태장교회는 새성전 건축을 위해 지난 5월 20일 오후 4시 새성전 기공예배를 드렸다.

성전은 태장동 1033번지 1500평 대지

위에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1700평의 예배당을 2002년 9월에 준공할 예정이다.

태장교회는 1958년에 창립하여 현재 5백여 명의 성도가 예배드리고 있다.

감리교 장로회 전국연합회장 서성욱 장로 추대



상동감리교회 서성욱 장로를 제12대 회장으로 추대했다.

이제까지의 경선을 하지 않고 신장과 학식, 덕망이 높은 서장로를 전제 대의

원이 추대하여 임기 2년의 회장을 맡고 사회에 봉사하며 국내외 선교에 주력할 것을 다짐을 끝으로 총회를 마쳤다.

서성욱 장로는 현재 서울YMCA 연맹이사로서 의장과 서울YMCA 연맹이사로서 있으며 감리교 교회학교, 남선교회, 한국 교육자선교회 회장을 역임하였고 서울시중부교육청장, 협신신학대학총무부장, 유네스코한국지부 및 교육진흥 등을 맡았던 교육전문가이다.

5월 성시선교 후원 명단

- 기원(34명)
- 김기태 김현철 김영명 김진현 민병업 박동환 박성운 성기는 안미애 안정숙 엄필남 오홍수 유근창 유태희 이만환 이병인 이순호 이준택 이학규 임은경 왕순옥 장기영 정용현 정찬복 조남진 조충환 최경호 최상호 한순수 한희원 허순영 홍순복 홍성진 황병만
- 민지(24명)
- 이익래/조순옥(미도출몰문기국속) 이만호/유영순(알로에마임) 조은제/기정희(메도출몰민선교센터) 이윤규(영광한의원)
- 기원(87명)
- 순복음순천교회(김주환 목사) 순천소양성경교회(이원호 목사) 순천제일성경교회(박성호 목사) 순천시암중앙성경교회(최상도 목사) 순천신사성경교회(장재호 목사) 순천일신장교회(이은주 목사)
- 후원(24명)
- 민병업(순천직장선교연합회장) 신문광
- 신종철(순천CBS소년소녀합창단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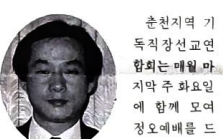
순천시후원계좌 (예금주 - 조남진) 통 계 203-02-280238 우 계 200022-02-129749 조충환 716-01-001389 국민은행 301-01-0585-522

우리는 종종 우리 자신들이 해야 하고 또 할 수 있는 일에도 불구하고 실천하지 않고 기도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기도를 잠시 멈추고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뜻을 알며 주님이 나에게 행할 것을 요구할 때 마땅히 행하는 실천력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고령, 춘천의 성스러운 도시화를 위해 이름도 없이 밭도 없이 오랜시간 기도와 봉사와 물질로 후원하고 계신 모든 손길 위에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춘천이 하나님의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믿음을 가지고 가까이 모듬이들이 되어주시 후원자가 절실합니다.

너는 일하여서 백성을 성결케 하여 이끄는 일을 하는 소수로 성결케 하여 내일을 기다려라... (여수서 7:13)

정오예배 통해 깨닫는 은혜와 감사



진삼을 정오예배위원장 (강원대학교신교회)

교회에서 정오예배 위원장의 소임을 맡고 자료를 정리하던 중 전임위원장님들의 **큰 믿음과 결실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 동안의 노고를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하라하신 직장에서 직장에서 파송된 선교사로서의 소임을 다하기 위하여 바쁜 시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으로 은혜받고 전신갑주를 입어 복을 진도자로 땅끝까지 전파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전 헌신이 순종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렇듯 정오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영적인 강건함을 얻고 직장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것은 동부교회와 후원회 배움을 수 있습니다. 매일 고령진 예배당과 맛있는 점심까지 특별한 대접을 받고 돌아옵니다. 이 지면을 통하여 동부교회와 후원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앞으로 우리 춘천 기독교 직장인 정오예배를 통하여 춘천의 대, 매월 말씀은 교역자교회와 및 직장선교연합회 지도목사님께서 전하시며 사회와 예배안내 그리고 대표기도와 특송은 각 교회회로로 윤번제로 준비합니다.

저는 지난 4월 21일 제12차 정기총

곳에 정착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귀한 유대인의 정착을 위해 다방면으로 돕고 있는 선교기관들은 생필품과 식량, 의류 등을 제공할 뿐 아니라, 정착에 필요한 자금까지 지원해 주고 있다. 현재 이스라엘 국적의 국민 가운데 1/5 정도가 리시아이를 사용하고 있을 정도로 리시아어 출신 귀환자의 규모는 상당하다. 이스라엘에서는 이들을 '올림(Olim)'이라고 부르는데 올림의 대부분은 빈손으로 귀환한다. 여행가방과 입고있는 옷이 전부인 이들에게 물품 수천명의 올림들이 귀환하고 있으며 이들을 위한 많은 사역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시하며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있다.

한 현상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기본을 잊고 있다고 하는 것을 뜻하며 더 이상 거대한 건물, 대규모 교육자, 보험 정책, 광고캠페인, 교회를 수리하는데 재정을 쓰지 않으려 할 것이라고 한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무의미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과로 성도들의 가정 내에서(DIY:손수 만드는 교회)가 생기고 있다. 현재 1,600개 이상의 가정 교회가 발전되고 있다.

이러한 결과로 성도들의 가정 내에서(DIY:손수 만드는 교회)가 생기고 있다. 현재 1,600개 이상의 가정 교회가 발전되고 있다.

이러한 결과로 성도들의 가정 내에서(DIY:손수 만드는 교회)가 생기고 있다. 현재 1,600개 이상의 가정 교회가 발전되고 있다.

이러한 결과로 성도들의 가정 내에서(DIY:손수 만드는 교회)가 생기고 있다. 현재 1,600개 이상의 가정 교회가 발전되고 있다.

이러한 결과로 성도들의 가정 내에서(DIY:손수 만드는 교회)가 생기고 있다. 현재 1,600개 이상의 가정 교회가 발전되고 있다.

이러한 결과로 성도들의 가정 내에서(DIY:손수 만드는 교회)가 생기고 있다. 현재 1,600개 이상의 가정 교회가 발전되고 있다.

이러한 결과로 성도들의 가정 내에서(DIY:손수 만드는 교회)가 생기고 있다. 현재 1,600개 이상의 가정 교회가 발전되고 있다.

이러한 결과로 성도들의 가정 내에서(DIY:손수 만드는 교회)가 생기고 있다. 현재 1,600개 이상의 가정 교회가 발전되고 있다.

이러한 결과로 성도들의 가정 내에서(DIY:손수 만드는 교회)가 생기고 있다. 현재 1,600개 이상의 가정 교회가 발전되고 있다.

전 세계 총인구의 70%를 차지하는 아프리카에 약 2천 5백만 명의 사람이 AIDS에 걸렸으며 아프리카 대륙의 주요 사망 원인이 되고 있다. 아프리카에서 오만간 사역하고 있는 복음부흥선교부(Gospel Revival Ministries)의 존무세르는 "우리는 슈퍼 면역국체인데도 조제에 걸리고 있는 몇몇 생활화자들이 손잡고 사역을 감당하고 있으며 신체의 독성을 제거하는 면역 체계를 세우는 일의 팀과 일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목표는 우리가 어떤 기술과 슈퍼 면역국체로도 일할 때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주님의 복을 전하길 원합니다. 앞으로 상당히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발행처: 인터넷해외선교정보센터/World Mission Daily)

아프리카 AIDS와 복음

화랑무공훈장



정경호 목사
(충청(가)대학
선교회 대표)

일을 해대라'지 못했다'고 한다. 결국 결
정 내지 못한 간담회에서는 자비로움과 인
내의 행위를 보였던 함자씨는 '불공과 인
공으로 한 재판을 보냈다. 전쟁의 간고
와 피의 시간을 한 줄의 끈으로 표현하기가 쉽
지 않다. 큰살은 큰 허벅지와 어깨에 갇혀
있었다'고 말하고 '눈에 살은 두, 무릎을 입었
다. 약해진 한쪽의 무릎은 하도병으로
발병되어 간병으로 두달이거치는데 지독한
고통을 겪었다'가 갑자기 제주시에서 있는
죽고자하는분들께 메시지를 보내요. 교묘한
5년의 큰 생활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 함
자씨는 85세로 지난 81년도에 소천 하신

[illegible]

만약도 이런 태도는 국가가 존엄하는 한 계속될 것이다. 6월은 국가가 꺾인 곳보다 부끄러워 할 곳이 없다. 우리 나라가 국뺨이 있고 보복을 주고 보복 받음이 있다. 나라를 위해 충성하다가 숙청된 사람을 잊어서는 안된다. 특히 국이 숙청되었다. 나라를 위해 숙청된인 일부가 그 남은 유가족과 나라를 잃고 떠난 부자가 보복 받는다. 나라를 잃고 떠난 다른 사람들을 지원하는 행위가 보복행위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중국적을 소유한 시민들이다. 대한민국에서 발급한 시민권을 잃어 가는 기현 하나니 나라에서 발급한 전국 시민권이 되어(법320), 우리는 한국 시민권을 가지게 생가해야 한다. 부자과 저지 나사로 비유해서 많은 것을 생각할 수 있다. 세상이지만 권금이 없었던 황하는 갈 길에 참 삼다가 전국에 갈려인 이 없어 지옥으로 떨어져 맑은 고을로 갔고 있다. 거기 나사로는 한국시민권을 잃고 있으므로 비록 세상이서 떠돌아 대우를 받지 못했지만 이브라함의 종에서 영원한 인식을 얻었다. 이는 한국시민권의 참 가치와 효력을 상징할 수 있는 비유의 일면이다.

한 국에도 감당이 있는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는 감당할 줄도 많은 분이 있음에 알
 려 주신다 바울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를 위하
 게 물이라고도 고백했다. (엡3:14) 천국에
 가는 자를 구원 할 만능 무궁한 것은 무窮인 것
 이 때문이다. 영생의 면류관인 이다(제3:10) 이는 사
 람을 믿는 자와 죽도 못난 자의 믿는 자가 받는
 면류관이다 이 존경을 받는 것은 죽도 못난 자
 성이라는 것이다 영의 면류관인 이다(1니후
 7:1) 이는 신약 때부터 마치고 끝까지 믿
 음을 가진 사람이 받는 면류관이다 사들지
 아니하는 영의 면류관인 이다(벧전
 5:4) 이는 알 무리의 본이 되는 자가 받
 는 면류관이다(벧전5:4). 곧 면류관, 열 두
 명의 면류관들이 계시록에 소개되고 있다.
 다. 현재의 그란은 감당 받을 영광과 축복
 을 주실 수 없다(창 38:28) 만지 그 나라
 와 그의 의를 위하여 일하라(마 10:33)
 모든 자에게서 구할 것은 충성이다(고전
 4:7). 하느님 나라의 보은분은 우리의
 사정을 치료하기 위해 의사의 의고인
 선물에 내기 때문이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
 의 좋은 공사가 우리 충성을 다하라. 부르
 시는 부서의 신. 원리무공자를 기뻐하

나외간증

“자로 30년” 하나님 감사합니다



김기태 장로
(춘천중앙감리교회)

지난 3월 10일은 제1 장로로 피택되어 시무한 년수가 만 30년 되는 날이었습니다. 당회 천거를 두 번이나 사양하다가 받은 강제로(?) 1971년 3월 시몬골목 나이에 삼척제일교회에서 장로가 되어 일년반을 시무하고 1972년 9월 춘천중앙교회로 이명하여 28년 6월이 지났으나 세월의 흐름을 실감합니다. "부끄러운 저에게 하나님의 인유하

고 술을 주머니에 몰아넣기도 하고 모
인 일을 때마다 예나 이쯤을 들추며
조롱하는 등 아물론 무엇인가 고비를
넘어가 려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지나
서 세례에 들어 믿음의 신장과 직장의
위치가 고교회에서 저 사람을 순종중앙
교회의 장로라고 인식되면서 시련의 정
도가 야해서 고나더니 당당히 설 수
있는 믿음의 용사가 됐습니다.

그동안 제가 티룩한 것은 나는 크리
스천이요 하느님 앞에서는 고나 역사와
전세를 거느린 존귀한 영의 자랑스런
임원이며 성도인 것을 내내우며 사랑의
신령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열심히
즐거움 마음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생
각해보니 그동안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돌보아 주셨는가를 알게 된
다.

교회적인 시간과 어려움이 있을 때, 성도들이 신앙의 침체와 갈등으로 힘들어 할 때, 강로지서 회로와 평강으로 돌리시 못하고 부끄러운 믿음을 행하였지만 하나님은 자에게 최선의 심과 충신한 것을 가차지 주셔서 지금도 말갛진 일에는 열심을 다하였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막내 딸요르던 제가 어느새 이순(卮順: 육신살)이 넘어 교회(古樞:질살)를 바라보게 되었고 이제는 신일장로가 되였습니다.

장로는 담임목사를 도와서 교회 성장에 힘쓰고 교인들의 신앙생활에 교회생활에 헌신하는 장로라고 교회와 교장의 규칙도 중요하지만 성경적 사명은 “감 무리의 몸”이 되어 하나님과 뜻을 합사 스코 생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비록 부족하지만 이 말씀을 명심하여 세 울받는 장로로서 교회장임 1백주년 맞이 **좋은 춘천교회의 장로로서 할 일을** 찾아 끊임없이 일할 것입니다. 내년 2023년은 춘천장로교회의 창립 1백주 년인 해입니다. 저에게는 교회창립 1백 주년 기념사업 위원장이란 중책을 맡겨 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춘천총 앙교회의 장로 수임 30년의 해이기도 합니다. 저는 사랑하시고 일하시 하심에 그 말씀에 순종하여 교회의 진리를 소중 히 여기고자 합니다.

춘천중앙의 자랑스런 성도들의 사랑을 바라면서, 우리 지역의 모든 장로님들의 기도와 협력을 받으면서 춘천 성시화의 일원으로 열심히 기도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전국 도시 성시화운동본부◎

청주	1) ★청주성신화운동문부식 (정원제 문부식) 충북 청주시 흥덕구 비하동 515-16 종암교회 내 TEL 043)231-8142 FAX:043)231-8144
대전	2) ★대전성신화운동문부식 (관성원 문부식) 대전시 중구 동화동 1-13 기독교인합동사회관 502호 TEL 042)252-1007 FAX:042)254-1007
인천	3) ★인천성신화운동문부식 (최숙자 문부식)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1131-12 인천기독교교회관 604호 TEL 032)420-0345 FAX 032)420-0348
대구	4) ★대구성신화운동문부식 (조돈재 문부식) 대구시 동구 신천3동 147-6번지 TEL 053)755-6003 FAX:053)759-7145
부산	5) ★부산성신화운동문부식 (정필도 문부식) 부산시 수영구 광안3동 화북오기스텔 1112호 TEL 051)759-7144 FAX:051)759-7145
춘천	6) ★춘천성신화운동문부식 (임택환 문부식) 강원도 춘천시 호서1동 373-90 월드비전 춘천종합사회복지관 내 TEL 033)256-1260 FAX 033)257-1260

가족캠프로 사랑을 나누는 중앙장로교회

춘천중앙강로교회(사공정 담임목사)는 지난 5월 4일부터 5일까지 본교회에서 가족구성원이 서로를 이해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하여 사랑과 신뢰를 회복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가족사람캠프"를 개최했다.

운대구 부목사의 사회로 시작하여 대표 기도 운전배 장로, 사공정 목사의 설교로 교회예배를 드린 후 부부세미나(강사 박헌동 목사)를 가졌으며 일일카페를 운영하여

가족간의 진지한 대화의 시간을 제공했다.

16가정이 참여한 가족캠프는 가정QT, 공동체놀이, 케익만들기, 비디오시청, 이웃사랑실천하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통해서 성도간에 친목을 도모하고 캠프 참가자 전원이 어린이 놀이터 및 주춧돌 주변을 청소하는 등 이웃을 섬기며 봉사하는 의미있는 시간이 되었다.



누구든지 다른 교회를 가지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건전한 말씀과 교명에
 바탕이 되는 교훈을 따르지 않으면, 그는 교만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고,
 범함도 없는 것과 같다함을 일함은 사람입니다. 그러던 데서, 시기와 장소와 방법
 과 방법의 의식이 생깁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생각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나라든지 서로 갈
 라서만 말하고, 어느 성이나 가정도 서로 갈라지면 비리 못한다.” 그런데 어떤나라
 어떤 성, 어느 나라 주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진 교회를 존경한다. 존경하는 또
 두 열거하는 말을 하며, 이러한 가운데서 분열을 일으키지 말며,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으로 동지입니다.

(디모데전서6장 3~4절, 마태복음12장25절, 고린도전서1장10절 말씀 표준새번역)

2001' MISSION CONFERENCE

한국 예수전도단 대학사역에서는 20여년 동안 매 여름마다 청년 대학생들의 신앙과 선교를 위한 집회를 개최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이 집회를 통해서 수 많은 젊은이들을 훈련하시고 주와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2001년 여름에도 변함없이 MISSION CONFERENCE(신앙과 선교집회)를 통해 신학생들이 한 해 대학생활에 생동과 활기를 불어넣고, 온전하고 헌신적인 신앙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공에서 한국교회의 청년 대학생들에게 새롭고 즐거운 본래의 신앙의 기쁨을 맛
게 하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강원지역 교회 청년 대학생들의 깊은 관심
과 참여를 기쁨으로 권합니다.

김봉욱 목사(예수전도단 춘천지부장)

- *주최: 한국 예수전도단 대хар시역
 - *기간: 2001년 7월 2일(월)~7월 6일(금)
 - *장소: 경기도 양주시 수암관
 - *표어: "Calling into the Holy Army!"
 - *주제: 이시야 13장 2~4절 말씀
 - *강사: 프레드 미켈(국제 예수전도단 전략교과 책임자)
- 홍성찬 목사(한국 예수전도단 대표)
- *접수: TEL. 033)252-1128 회비명 간사
 - ①차-6월 22일(토)까지 회비 8만5천원
 - ②차-6월 23일(토)까지 회비 8만7천원
 - ③차 당일등록-7월 2일(월)까지 회비 9만원
 - *참가인원: 노원 301813-752-055427 (매일주-표지형)

(주)화진코스메틱

충청개발영업본부

팀장 한 다 빛 집사
(양문순복음교회)



- ★인공지능 메직뷰티 : 문제성 피부상담
☆건강보조식품 상담 : 키티ن 키토산, 폴렌파워
★채혈관리 : 밀라노 인터내셔널 (기능성 란제리)
▶남,여 사원모집 : 나이, 연령 제한없음

<http://www.ihwajin.co.kr> (마사지 무료 2회)

TEL. 033) 243-2834~8 H/P. 016-737-1125